

체류형 관광도시 · 경제 · 민생 총력

전주시, 내년도 국가예산 체류형 관광산업 동력 · 미래 신산업 육성 · 강한 경제도시 구축 등 초점 맞춰

전주시가 내년도에 확보한 국가 예산을 들여다보면 체류형 관광도시 도약과 강항경제 도시 구현, 민생 안정에 방점이 찍혀있다.

특히 시는 민생8기 핵심사업인 왕의궁원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인 국립 후백제역사문화센터 등 전주 관광의 매력을 배가시킬 다양한 국가예산을 확보하면서 체류형 관광산업을 기술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됐다.

산업별로는 그간 전략적으로 육성 해온 탄소·드론산업과 더불어 미래 먹거리산업인 바이오헬스 분야와 미래전지 분야 등 신산업 육성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산업분야 예산도 꼼꼼히 챙기면서 강항경제 도시로 나아가갈 기반을 갖추게 됐다.

먼저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역사·문화자원의 새로운 가치를 재창조하는 왕의궁원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도시 전역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주요 사업은 국립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2억 원),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사운드

랩 구축(3억 원) △음식관광 창조타운 건립(43.5억 원)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어 미래전지 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슈퍼커패시터 융합 모빌리티 산업 고도화 기반구축'(17.7억 원) △환성탄소 산업 생태계 구축 및 지역 탄소산업 저변을 확대하는 '다공성 탄소소재 환경 및 부품개발 기반 구축'(22억 원) 등 미래 신산업 혁신거점 가속화 예산을 확보했다.

시는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26억 원)'과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급사업(10억 원)' 등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청년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전주만의 창업생태계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광역시도 교통·체육·생활인프라 확충 등 광역·미래도시분야 예산도 대거 확보했다. '남부권 국민체육센터 건립(10억 원)', 지역생산·지역소비 체계 구축으로 로컬푸드 가치확산 및 전북 도내 먹거리 선순환체계

를 확립하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3억 원) 등이다.

복지·사회안전망 분야에서는 사회적 돌봄시스템 구축과 등 사업으로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20억 원) △노후 정신요양시설 신축(14억 원), △원주전주상생 공덕 재해위험 지역 정비(8억 원), △전주권 광역도시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20억 원) △전북지역 재활병원 건립(30억 원) 예산을 확보했다.

△국가 예산 2조 원 시대, 공조 역할 가장 먼저 우 시장은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를 상대로 민선 8기 시정 핵심 목표인 '강한 경제'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 지원을 적극 건의해왔다.

이어 우 시장은 부처별 예산편성이 끝난 이후에는 기재부를 주요 타깃으로 정부예산안에 전주 발전을 위한 신규 사업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발품을 팔아 왔다.

김인태 전주부시장과 각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들도 국회와 정부청사를 뒀다며 소관 부처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주요 현안사업의 국가 예산 반영 지원을 요청하는 등 국가 예산 확보에 공을 들여왔다.

국회 단계에서는 지역연고 국회의원과 서삼석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등 국회 예결위원, 각 삼임위원장, 여야 지도부 등을 상대로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우범기 전주부시장은 "지난 1년간 전주의 성장을 가로막는 벽을 허물고, 전주의 대변역과 새로운 혁신성장 기반이 될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전북도, 지역 정치권과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전주를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강항경제 도시, 미래 광역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욱기기자

전주시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 24년째 이어진 따뜻한 선행

현금 8006만3980원과 함께 '올 한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세요' 메시지 남겨... 총 성금 9억6479만7670원 달해

해마다 연말이 되면 낯빛 없이 베푸는 사람으로 큰 감동을 선사해온 전주시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와 세밀한 한파를 녹였다.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3분,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 한 봉의 전화가 걸려 왔다. 중년남성의 목소리로 올해로 24년째 매년 이맘때면 찾아오는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였다. 통화 내용은 "이레교회 표지판 뒤에 놓았으니, 불우한 이웃을 위해 써주세요"라는 내용이었다.

주민센터 직원들이 통화 내용에 따라 확인해보니 주민센터 인근 교회 표지판 뒤에 A4 복사용지 박스가 놓여 있었고, 상자에는 5만 원권 지폐 다발과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축통 1개가 들어 있었다. 금액은 모두 8006만3980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이름도, 직업도 알 수 없는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로 24년째 총 25차례에 걸쳐 물레 보내 준 성금은 총 9억6479만7670원에 달한다.

이날 천사가 남긴 A4용지에는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 쓰여있었다.

얼굴 없는 천사가 남몰래 놓고 간 성금은 얼굴 없는 천사가 남긴 메시지에 따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될 예정이다.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는 지난 2000년 4월 초등학생을 통해 58만4000원의 돼지저축통을 중노2동 주민센터에 보낸 뒤 사라져 불리게 된 이름으로, 해마다 성탄절을 전후로 남몰래 선물을 이어오고 있다.

시는 그간 얼굴 없는 천사가 베푼 성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지역 주민에 현금과 연탄, 쌀 등을 전달했으며, 이



해마다 연말이 되면 낯빛 없이 베푸는 사람으로 큰 감동을 선사해온 전주시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와 세밀한 한파를 녹였다. 27일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 직원들이 '얼굴 없는 천사'가 전달한 성금을 정리하고 있다.

와 함께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 인재에 대한 장학금 및 대학 등록금도 수여해왔다.

노송동 일대 주민들은 이러한 '얼굴 없는 천사'의 뜻을 기리고 그의 선물을 본받자는 의미에서 숫자 천사(1004)를 연상케 하는 10월 4일을 '천사의 날'로 지정하고, 천사축제를 개최하여 불우이웃을 돕는 등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송동 특화사업으로

매월 4일을 '얼굴 없는 천사의 날'로 정하고, 지역사회 노인들을 대상으로 △중식 제공 △이·미용 봉사 △문화 누리카드 잔타 개장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며 천사의 나눔 정신을 기리기도 했다.

전주시 '얼굴 없는 천사'는 올해 처음 제정된 HD현대아너스의 '대상'과 '1%나눔상'의 수상자로 결정되기도 했다. 시상금 2억 원은 전주시에 전달돼 '얼굴 없는 천사'가 평소 밝혀온

뜻에 따라 소의계증을 돕는 일에 사용될 예정이다.

송해인 노송동장은 "2000년부터 한해도 빠짐없이 익명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큰 사랑과 감동을 선사한 전주시 '얼굴 없는 천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얼굴 없는 천사의 바람대로 나눔의 선순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기자

청년전세자금대출 제도 악용, 대출사기 일당... 경찰에 달미

HF 청년 전세자금대출로 7억원대 사기행각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청년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사기로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A(2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범죄에 가담한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2월 전주의 임대인들과 8건의 전세 계약을 맺은 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월세보증금 7억3000여만원을 가

로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억원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전세자금대출'로 총당하고, 잔금은 입주시 완납한다'는 조건으로 B씨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대출금을 입금받은 집주인에게 사정변경이 생겨 입주를 하지 못한다'며 대출금을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무주택·무소득 청년을 상대로 특별한 담보 없

이 HF 보증 아래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이 대출금은 건당 1억원 한도로, HF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또한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20대 청년 7명을 모집하여 같은 수법으로 7건의 추가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확보한 뒤, 대출명의를 조사, A씨 등과 공모해 거주사 없이 전세계약을 맺고 대출금을 받아 반절씩 나누어 썼다는 진술을 확보해 범

행의 진모를 밝혀냈다.

A씨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무주택 세대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지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대출이 시행되는 일부 은행의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는 과정이 일반적인 절차와 다르다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1000여건의 '청년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난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문제점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통보해 보완할 계획이다.

/뉴스

노후·훼손 건물번호판 정비 나서

전주시, 10년 이상 경과 훼손 번호판 5174개 무상 일제 정비

전주시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훼손 건물번호판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전주시는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노후·훼손된 건물번호판 5,174개를 무상으로 일제 정비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시 외곽인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하반기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건물번호판을 교체했다. 이번 건물번호판 교체는 건물소유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무상으로 진행됐다.

무상 교체 대상은 지난 2014년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기 이전에 시에

서 설치한 지 10년이 경과 되고 건물소유자의 귀책 사유 없이 오랜 기간 햇빛 노출 등 자연현상으로 변·탈색 등이 심하게 발생한 건물번호판을 선정했다.

시는 주소정보 기능의 상실로 인한 도로명주소 사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비 사업을 추진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건물번호판 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기대하며 지속적인 정비로 시민들의 일상에서 주소 사용 편의성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김욱기기자



전북대병원 권역호흡기센터에서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크리스마스 행사가 진행됐다.

전북대병원, 권역호흡기센터 크리스마스 행사 진행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권역호흡기센터에서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크리스마스 행사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권역호흡기센터는 이번 행사에 환자 및 보호자들이 크리스마스를 위한 추억의 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 포토존을 설치하였으며, 센터 내 병동 환자 및 보호자뿐만 아니라 병원 내원객들이 포토존에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여 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권역호흡기센터 내 환자 약 120명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병동에서 맞이하게 된 크리스마스지만 환자들은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으며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박성주 센터장은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할 크리스마스를 병동에서 보내는 환자 및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권역호흡기센터에서 작게나마 이벤트를 준비하였다"며 "의료진들도 환자들이 건강하게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기자



전주지역 건축사회는 27일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성금 500만 원을 전주시에 전달했다.

"작은 위로와 도움 되길"

전주지역 건축사회, 사랑의 성금 500만원 전달

전주지역 건축사회(회장 이성열)는 27일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성금 500만 원을 전주시에 전달했다.

전주지역 건축사회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과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 건축상담 재능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이성열 전주지역 건축사회 회장은 "올해도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힘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성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부시장은 "매년 지역 발전과 이웃사랑을 함께 실천해 주신 전주지역 건축사회에 감사드리다"면서 "성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역 건축사회는 1980년 설립 이후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과 쾌적한 도시 및 건축환경 조성, 건축문화 발전 및 건축기술의 향상과 미래 건축에 대한 연구 지원 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회원의 품위 보전 및 권익증진, 친목도모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김욱기 기자

/뉴스